



수입 생녹용 불법유통, 포상금으로 뿌리뽑는다

- (가칭)불법생녹용대책위원회 발족,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

국내 양록산업을 쪼먹는 불법 유통 수입생녹용에 대해 포상금제도가 마련돼 신고자에게는 상당 금액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지난 12월28일 한국사슴연합회(회장·장진하) 사무실에서 뜻있는 양록인 20여명이 모여 (가칭)불법생녹용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불법 유통되는 수입생녹용에 대해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가칭)불법생녹용대책위를 기존의 어떤 사슴관련 단체에도 포함되지 않는 순수 민간차원 단체로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임시 공동추진위원장에 이광덕, 강준수, 이해곤, 민병임씨를 선임했다. 간사로는 사슴신문 전제승

대표가 선임됐다.

이광덕 임시 추진위원장은 “그 동안 불법 수입생녹용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할 경우 본인의 피해를 우려, 신고 자체를 꺼려온 경향이 있었다”고 밝히고 “충분한 금전적 보상이 있는 이상 활발한 신고와 적발로 불법 유통되는 수입생녹용이 완전히 뿌리뽑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모든 양록인이 참여할 때 더욱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모든 양록인들이 기금 마련 동참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기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법 수입생녹용을 유통시키는 사람들의 활동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을 모으고 국내 양록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 거국적인 기금마련에 힘을 쏟기로 다짐했다.

(가칭)불법생녹용대책위원회는 2월중 창립총회를 개최, 활동력과 포용력을 지닌 인물을 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부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은 지역별로 선정, 각 지역 양록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금활동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모인 양록인 20여명은 즉석에서 1천만원의 포상금을 모금했다. **민병임**

